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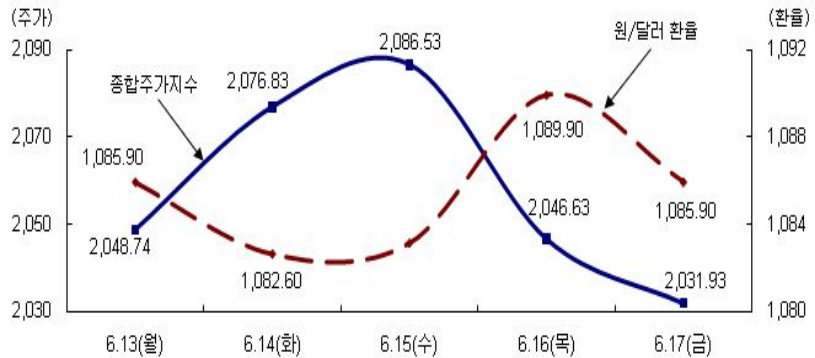
HRI Weekly Economic Review



2011년 하반기 경제 전망과 정책 과제
- 확대균형적 내수 활성화 정책 시급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6.13~6.17)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2011년 하반기 경제 전망과 정책 과제	
- 확대균형적 내수 활성화 정책 시급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8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 성 : 동 향 분 석 실 (2072-6218, limhj9@hri.co.kr)
 정 책 연 구 실

Executive Summary

□ 2011년 하반기 경제 전망과 정책 과제

- 확대균형적 내수 활성화 정책 시급

■ 2011년 하반기 대외 경제 여건

세계 경기 탈동조화(Decoupling) :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경제는 회복세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 등 신흥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 기록 예상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 : 신흥국 경제 회복에 따른 원자재 수요 증가 등으로 국제 유가를 포함한 주요 원자재 가격은 하반기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 : 달러화는 미국 경기 회복 부진과 저금리 정책 지속 등으로 약세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2011년 하반기 국내 경제 부문별 전망

2011년 한국 경제 하반기 4.7%, 연간 4.3% 성장 예상 : 하반기 4.7%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나 세계 경제 회복세 약화와 내수 경기 둔화 등으로 2011년 경제성장률은 연간 4.3%로 2010년 6.2%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

소비는 회복세 미흡 : 상반기보다는 기저효과 등에 의해 회복할 것이나 가계부채, 실질 가처분소득 하락,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증가세는 미약

설비투자는 증가 폭 둔화 : 수출 증가 지속 등으로 투자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나 공공부문 기계수주 부진 등으로 하반기에 증가 폭은 둔화될 전망

건설투자는 소폭 반등 : 건설수주 등 선행지표 상승 반전, 예정된 공공부문 토목공사 조기 집행 가능성 등으로 하반기 반등 전망

경상수지 흑자 규모 축소 :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나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크게 증가하여 경상수지 흑자 규모 축소 전망

물가는 상승세 약화 : 하반기 소비자물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 상승 요인이 있으나 기준금리 인상, 내수 부진, 원화 절상 등으로 상반기 대비 상승폭 축소

고용은 부진 지속 : 하반기에 수출 호조세 등의 영향으로 실업률은 상반기보다 하락할 전망이나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상태 유지

시중금리는 상승 : 물가 불안 등으로 시중 금리 상승 압력이 높으나 가계부채, 유럽 재정위기 재부각 등 대내외 불안 요인으로 상승폭은 소폭에 그칠 전망

■ 시사점과 정책 과제

시사점 : 2011년 하반기도 내수 회복이 미약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부 정책은 확대균형적 내수 경기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단기과제 : 서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가계부채 연착륙, 투자 활성화 등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첫째, 하반기에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 공공 및 서비스 요금 차등 인상 등으로 인한 물가 안정 기조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완만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되, 저소득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등하지 않도록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장기,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셋째, 건설 및 설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미분양 아파트의 다양한 용도 개발과 적정가 분양, 주택 매매 활성화 촉진 등을 통해 민간 건설 경기를 살려나가는 한편, 법인세 감면 등 일관성 있는 조세 정책 추진으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중기과제 : 국내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서비스업을 비롯한 내수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첫째, 서비스업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선진화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의료·관광·교육 부문에 대한 개방과 혁신으로 이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둘째, 내수 기반 확충을 위해 일자리 창출의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제’와 마찬가지로 ‘고용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이를 전산업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셋째,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 대중소기업의 동반 세계화, 법·제도 기반 사회 안정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특히, 좁은 국내시장 중심의 ‘나누기식’ 동반성장 보다는 세계시장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 진출하는 ‘확장형’ 동반성장 정책 발굴에 힘써야 한다.

< 2011년 하반기 국내 경제 부문별 전망 >

구 분		2009	2010			2011(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0.3	8.0	4.5	6.2	3.9	4.7	4.3	
	민간소비 (%)	0.0	5.1	3.3	4.1	3.4	4.0	3.7	
	건설투자 (%)	3.4	0.4	-3.0	-1.4	-6.4	4.8	-0.8	
	설비투자 (%)	-9.8	29.8	21.0	25.0	9.0	8.0	8.5	
대외거래	통관기준	경상수지(억 \$)	328	91.2	190.9	282.1	75	73	148
		무역수지(억 \$)	405.0	175.4	236.4	412.0	172.2	137.8	310
	수출(억 \$)	3,635.0	2,214.0	2,450.0	4,664.0	2679	2750	5,434	
		(-13.9)	(34.3)	(23.3)	(28.3)	(21.0)	(12.4)	(16.5)	
	증가율 (%)								
수입(억 \$)	3,231.0	2,038.0	2,214.0	4,252.0	2507	2617	5,124		
	(-25.8)	(40.2)	(24.6)	(31.6)	(23.0)	(18.2)	(20.5)		
증가율 (%)									
소비자물가(평균, %)		2.8	2.6	3.3	2.9	4.3	3.8	4.0	
실업률(평균, %)		3.6	4.1	3.4	3.7	3.8	3.3	3.6	
원/달러 환율(평균, 원)		1,276.4	1,143.4	1,165.2	1,156.0	1,092	1,050	1,070	
국고채 수익률(3년)		4.0	3.9	3.5	3.7	3.8	4.4	4.1	

□ 2011년 하반기 국내 경제 전망과 정책 과제

- 확대균형적 내수 활성화 정책 시급

1. 2011년 상반기 경제 특징과 문제점

○ 국내 경제는 2011년 상반기에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경상수지 흑자 기조도 유지되었음

- 경기 회복세 지속 : 국내 경기는 1/4분기 4.2% 성장을 기록함으로써 회복세를 지속

· 국내 경제는 전년동기대비로 2010년 3/4분기 4.4%, 4/4분기 4.7%, 2011년 1/4분기 4.2%로 잠재성장률 수준인 4%대의 성장률 지속 달성

- 경상수지 흑자 유지 : 높은 수출 증가세를 나타내어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

· 수출은 2011년 1~5월까지 2,284.7억 달러 기록하여 27.4% 증가, 수입은 같은 기간 2,172.2억 달러로 26.2% 증가

·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각각 157.5 억 달러(1~5월)와 44.9(1~4월) 억 달러 흑자

○ 경기 회복 기조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점 상존함

- 내외수 경기 양극화 : 수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부진

· 수출증가율 2010년 3/4분기 22.7%, 4/4분기 23.8%, 2011년 1/4분기 29.9%로 상승세 지속

· 민간소비는 각각 2010년 3/4분기 3.6%, 4/4분기 2.9%, 2011년 1/4분기 2.8%로 하락세. 건설투자는 동일 기간 중 -3.1%, -2.9%, -11.9%로 급락

- 체감 경기 악화 : 내수 부진과 함께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보다 낮아 체감 경기 회복이 미흡함

·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2010년 4/4분기 4.7%, 2011년 1/4분기 4.2%인데 비해 국민총소득 증가율은 3.0%와 1.8%를 기록

- 서비스 수지 적자 : 관광·교육 등 서비스업의 경쟁력 약화로 큰 폭의 서비스 수지 적자가 이어짐
 - 서비스 수지는 2010년에 112.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2011년 1/4분기에도 25.4억 달러의 적자 기록
- 물가 불안 :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세, 차이나플레이션 상승 등에 따라 국내 물가 불안 지속
 - 국내 소비자물가가 2011년에 들어 4.1% 이상의 상승률 지속
 - 두바이유, 구리 등 원자재 가격 상승세 지속. 두바이유는 2011년 5월 배럴당 평균 108.04달러를 기록하여 1월 이후 100달러 이상 기록
- 고용 시장 부진 : 실업률이 3% 초반으로 떨어졌으나 청년 실업 등 해소가 부진
 - 실업률은 2010년 3.7%에서 2011년 1/4분기 4.2%까지 상승한 후 5월 현재 3.2%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 상존
 - 특히, 청년 실업률은 5월 현재 7.3%로 평균 실업률보다 2.3배나 높음

<국내 경제 부문별 실적 추이>

(단위 : %, 억 달러)

성장률	2009	2010					2011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내수	민간소비	0.0	6.6	3.5	3.6	2.9	4.1	2.8	-	-
	건설투자	3.4	4.3	-2.3	-3.1	-2.9	-1.4	-11.9	-	-
	설비투자	-9.8	29.1	30.5	26.6	15.9	25.0	11.7	-	-
외수	경상수지	328	2.6	88.6	99.3	91.6	282.1	26.1	18.8	-
	무역수지	405	29.3	146.1	106.2	130.2	412.0	78.7	51.4	27.5
	수출	3,635	1011	1202	1163	1287	4,664	1,313.1	491.5	480.1
	증가율	-13.9	35.8	33.1	22.7	23.8	34.3	29.9	25.1	23.5
	수입	3,231	982	1056	1057	1157	4,252	1,234.4	440.2	452.6
	증가율	-25.8	37.4	42.8	24.6	24.6	31.6	25.8	23.9	29.9
	서비스수지	-66.4	-42.0	-18.7	-29.5	-22.0	-112.3	-25.4	-1.8	-
증가율	-15.8	-57.9	55.4	-57.5	25.5	-69.1	-15.3	85.9	-	
고용	실업률	3.6	4.7	3.5	3.5	3.3	3.7	4.2	3.7	3.2
	청년실업률	8.1	9.8	7.7	7.6	7.1	8.0	8.8	8.7	7.3

주 : 1) 내수와 고용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무역수지, 수출, 수입은 통관기준임.

2. 2011년 하반기 경제 전망

1) 2011년 하반기 대외 여건 변화

(1) 세계 경기 : 세계 경기 탈동조화(Decoupling)

- 2011년 상반기 세계경제는 미국경기 회복둔화, 유럽재정위기, 중동사태와 일본 대지진 여파로 선진국 경제의 둔화 속에 신흥개도국은 상대적 높은 성장세를 보임
 - (상반기 세계경제) 상반기,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가의 경기가 크게 둔화했지만 신흥개도국 중 중국과 인도는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이어감
 - 미국 : 미국의 1/4분기 경제성장률은 1.8%로 2010년 4/4분기 3.1%에 비해 크게 하락, 불확실성 확대
 - 유럽 및 일본 : 유럽(유로)은 재정위기 여파로 1/4분기 0.8%의 성장률, 일본은 대지진 이후 소비지출, 기업 및 공공부문 투자 둔화로 1/4분기 -3.7%의 성장률 기록
 - 중국 및 인도 : 중국은 1/4분기 2010년 4/4분기 9.8%와 비슷한 9.7%를 유지, 인도도 1/4분기 7.8%로 전년도 4/4분기 8.3%보다는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이어감
- 하반기에도 선진국 경기 회복 지연, 신흥국 경기 회복 지속의 탈동조화 현상이 이어질 전망
 -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각각 2011년 2.4%로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반면 신흥개도국은 6.5%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 전망
 - 미국 : 미국 경제는 2011년에 2%대 성장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은 2011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2.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6%로 예상
 - 일본 및 유럽 : IMF와 OECD의 전망치로 볼 때, 일본은 0.9~1.4%, 유럽은 1.6%~2.0%의 성장 전망
 - 신흥개도국 : 중국경제와 인도는 IMF와 OECD 전망치에 근거해 각각 9.0%~9.6%와 8.2%~8.5%의 높은 성장이 전망되나, 아세안5¹⁾은 전년대비 1.5%p 낮은 수준 기록 예상

< IMF와 OECD의 세계 각국 경제성장률 전망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E)			
			1/4분기 (실적치)	OECD	IMF	
				'11년 5월	'11년 1월	'11년 4월
세계	-0.5	5.0	-	4.2	4.4	4.4
선진국	-3.4	3.0	-	-	2.5	2.4
미국	-2.6	2.8	1.8	2.6	3.0	2.8
일본	-6.3	3.9	-3.5	0.9	1.6	1.4
유럽	-4.1	1.7	0.8	2.0	1.5	1.6
신흥개도국	2.7	7.3	-	-	6.5	6.5
중국	9.2	10.3	9.7	9.0	9.6	9.6
인도	6.8	10.4	7.8	8.5	8.4	8.2
아세안-5	1.7	6.9	-	-	5.5	5.4
중동	1.8	3.8	-	-	4.6	4.1
세계 교역량	-10.9	12.4	-	8.1	7.1	7.4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1; OECD, *Economic outlook*, May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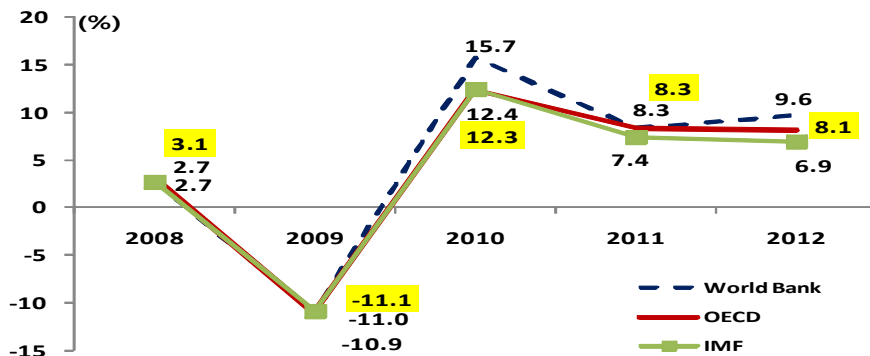
주 : IMF의 중동 수치는 북아프리카(North Africa) 포함.

1) 아세안5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을 의미.

(2) 세계 교역 : 세계 교역 증가 속도 둔화

- 2011년 상반기 세계경제는 선진국들의 양적완화정책과 신흥국들의 빠른 경기 회복 기조를 유지하며 수출 12.2%, 수입 8.9% 증가
 - 선진국 : 유럽과 일본은 유럽의 재정위기 및 동일본대지진 영향으로 성장이 다소 부진하였지만 미국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수출 8.0%, 수입은 7.6% 증가
 - 신흥개도국 :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은 실물경기의 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나며 금융위기 이전의 교역 수준을 회복하여 수출 16.3%, 수입은 10.4% 증가

< 해외 주요기관의 세계 무역량 전망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0. OECD, *Economic Outlook No.88* November 2010.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January 2010.

- 2011년 하반기에도 신흥국 중심의 세계 경제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나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10년 보다는 하락할 것으로 보여 교역 증가율은 다소 낮아질 전망
 - 2011년 세계 교역량은 미국의 경기둔화, 유럽의 재정위기 지속, 동일본 대지진 영향으로 인한 일본의 성장률 하락 등 주요 선진국의 성장세 둔화로 2010년에 비해 하락할 전망
 - 신흥국은 하반기에도 견조한 경제 성장세를 이어나가며 수출입 증가율이 선진국 보다 높을 전망

< 세계 수출입 전망 >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세계 무역증가율	2.7	-10.9	12.4	7.4	6.9	
수출	선진국	1.9	-12.2	12.0	6.8	5.9
	신흥국	4.0	-7.5	14.5	8.8	8.7
수입	선진국	0.4	-12.6	11.2	5.8	5.5
	신흥국	8.8	-8.3	13.5	10.2	9.4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1.

(3) 국제 원자재 : 가격 상승세

○ 2011년 상반기에 신흥국경제 회복세가 유지되면서 국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냄

- 곡물, 원유, 금속 등의 주요 17개 품목의 상품선물 시세를 나타내는 CRB지수 역시 상승세 지속
 - CRB지수는 2010년 4/4분기말 332.80에서 2011년 5월 341.56으로 높은 수준
- Dubai유는 2011년 5월 배럴당 평균 108.04 달러로 1월 92.55달러 이후 100달러 이상 기록
 - 서부텍사스(WTI)유는 2011년 5월 배럴당 평균 101.29 달러로 2월 89.66 달러 이후 100달러 이상을 기록

○ 신흥국경제 회복에 따른 원자재 수요 증가와 중동발 정정불안 등으로 국제 유가를 포함한 주요 원자재 가격은 하반기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

- 美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ERA)에 따르면 Dubai유는 2010년에 연간 기준 배럴당 평균 78.03달러에서 2011년에는 평균 109.59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Brent유가는 2010년 배럴당 평균 79.46달러에서 2011년 112.82달러, WTI유는 79.83달러에서 101.53달러로 급등할 전망
-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곡물가격 급등 등으로 2011년 하반기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

<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 >

(단위 : p, 달러/트로이 온스, 달러/파운드)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간	1/4분기	4월	5월
CRB	283.38	273.34	258.52	286.86	332.80	332.80	359.43	370.56	341.56
금	1095.2	1113.3	1245.5	1307.8	1421.1	1421.1	1438.9	1556.0	1508.8
구리	334.65	356.30	295.05	365.15	444.70	444.70	431.70	417.90	412.15

자료 : Reuter EconWins, CRB(Commodity Research Bureau).

주 : 1) 수치는 연말, 월말, 분기는 3월, 6월, 9월, 12월 말 수치임. 2) 5월은 5월 20일 기준.

2) 단위 : CRB는 지수(p), 금은 달러/트로이 온스, 구리는 달러/파운드.

< CERA 유가 전망 >

(단위 : 달러/배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간	
Dubai유	78.03	100.48	118.10	111.68	108.12	109.59	109.31
Brent유	79.46	104.96	122.33	114.17	109.83	112.82	112.16
WTI유	79.38	93.97	110.00	102.17	100.00	101.53	104.16

자료 : CERA(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美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

주 : 기간 중 일일 증가의 평균치이며, 전망시기는 2011년 4월 26일임.

(4) 주요국 환율 : 달러 약세 기조

- 글로벌 달러화는 2011년 상반기에 미국경기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약세 기조가 이어짐
 - 달러화지수는 2011년 6월 16일 현재 75.8p로 올 연초 81.0p 6.9% 하락
- 2011년 하반기에도 미국경기회복 부진에 따라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가 이어지나 상반기에 비해 약세 기조가 다소 완화될 전망
 - 글로벌 달러 : 달러화는 미국 경기 회복 둔화 가능성 상승, 저금리 정책 지속 기대로 약세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한편, 2차 양적 완화 정책 종료와 2011년 연말에 미국 기준 금리 인상 기대 심리로 하반기에 달러 약세 기조가 다소 완화 될 전망
 - 유로 : 글로벌 달러 약세 지속 기대, 유럽지역의 양호한 경제 회복세 예상 등으로 유로화 강세 지속될 전망이나 최근 남유럽국의 재정 위기 재부각으로 강세 흐름을 억제 할 것임
 - 엔화 : 동일본 대지진 복구 지연으로 일본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양적 완화 및 저금리 정책으로 엔화 약세 예상
 - 위안화 : 수입 물가 상승 압력, 달러화 약세에 따라 위안화 환율 절상은 하반기에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달러 대비 일일 변동폭이 0.5%에서 1.0%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의 환율 전망 >

	달러/유로			엔/달러			위안/달러		
	3개월후	6개월후	12개월후	3개월후	6개월후	12개월후	3개월후	6개월후	12개월후
평균	1.4293	1.4217	1.4100	83.21	83.42	86.64	6.39	6.32	6.21
최 고	1.5200	1.5000	1.5500	90.00	90.00	92.00	6.48	6.45	6.35
최 저	1.3500	1.3200	1.300	75.00	78.00	78.00	6.30	6.20	6.01

자료 : 국제금융센터

주 : 14개 국제투자은행의 2011년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의 전망치를 이용.

2) 2011년 하반기 국내 경제 부문별 전망

(1) 경기 : 경기 회복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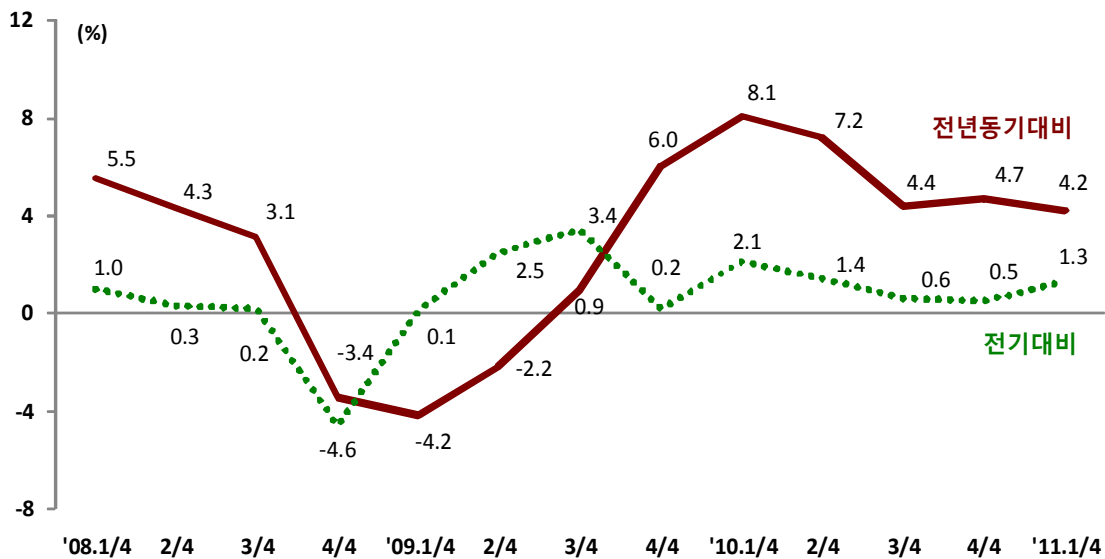
○ (현황) 상반기 국내 경기는 수출 증가세 지속 등 회복세가 이어짐

- 지난 2010년 3/4분기 4.4%, 4/4분기 4.7%, 2011년 1/4분기 4.2%로 잠재성장률 수준인 4%대 이상 유지
 - 또한 산업생산도 동일 기간 중 10.9%, 11.7%, 10.6%로 두 자릿수 증가율 지속
- 수출 증대, 설비투자 회복세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수출은 2011년 3월 28.8%, 4월 25.1%, 5월 23.5%로 20%대 증가율 지속
 - 설비투자는 2010년 3/4분기 26.6%, 4/4분기 15.9%, 2011년 1/4분기 11.7% 기록

○ (전망) 하반기에도 수출 증가세 유지, 기저 효과에 의한 내수의 상대적 호전 등으로 상반기 보다 높은 성장률 기록 전망

-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4.7%로 상반기 3.9%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연간으로는 4.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2) 소비 : 회복세 미흡

○ (동향) 2011년 상반기 양호한 고용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는 물가상승 및 이자비용 증가에 따른 실질가처분소득 감소로 성장세 둔화

- 2011년 5월까지 신규취업자수는 40.1만 명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1분기 실질가처분소득이 1.5% 하락하면서 민간소비는 3.0% 증가에 그침
 - 소비자물가가 5개월 연속 4%를 상회하면서 실질가처분소득 감소
 - 1/4분기 가계부채가 처음으로 8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증가세가 지속되고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면서 소비 위축

○ (전망) 2011년 하반기 4%대 후반의 양호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증가율은 4.0%에 머물 것으로 전망

- 고용 증가세 소폭 둔화 :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4%대 후반으로 예측됨에 따라 고용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기저효과로 신규취업자수는 20만명 초반대로 떨어질 전망
- 실질가처분소득 회복세 지연 : 명목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 가계대출 증가, 금리상승으로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
- 소비심리 정체 : 상반기 소비지출전망지수가 11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4%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소비위축 우려 상존
- 2011년 민간소비는 상반기 3.4%, 하반기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민간소비 추이 및 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소비자물가	0.0	4.1	3.4	4.0	3.7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1년 상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3) 설비투자 : 증가 폭 둔화

○ (현황) 설비투자는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음

- 국민계정 설비투자와 통계청 설비투자는 2011년 1/4분기까지 6분기 연속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증가폭은 축소
 - 국민계정상의 설비투자는 2011년 1/4분기 11.7%로 2010년 2/4분기 이후 증가폭 축소
 - 설비투자(통계청)는 2011년 1/4분기 6.6%로 2010년 1/4분기 이후 증가폭 축소
- 대외적으로는 유럽 재정위기 재부상, 중동발 정정 불안, 대지진으로 인한 일본경기 침체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투자심리 약화

< 설비투자 추이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연간	2011년
	연간	연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
설비투자(국민계정)	-1.0	-9.8	29.1	30.5	26.6	15.9	25.0	11.7
설비투자 (통계청)								
전년동기대비	-2.3	-9.4	30.0	29.5	29.3	13.6	25.1	6.6
전기대비	-	-	4.0	6.7	7.2	-5.4	-	-0.2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전망)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기준점(8%p)을 하회하는 가운데 공공부문 기계수주의 부진 등으로 향후 설비투자 증가세는 계속 둔화될 전망

- 설비투자조정압력은 2011년 1/4분기 4.0%p로 기준점인 8.0%p를 3분기 연속 하회
-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개선되었으나 공공부문은 2011년 1/4분기 10.3% 감소로 전환

< 설비투자 선행지수 및 조정압력 추이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연간	2011년
	연간	연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
국내기계수주	-14.1	-10.3	10.3	24.7	-0.2	11.3	11.2	19.5
공공부문	5.0	62.4	-43.7	-42.2	-71.7	31.4	-37.9	-10.3
민간부문	-15.8	-18.2	22.6	35.5	22.0	7.8	21.8	22.6
설비투자조정압력	-1.7	-3.7	20.4	12.1	3.4	4.6	9.5	4.0

자료 : 통계청.

주 : 설비투자조정압력(%p) = 제조업생산증가율(%) - 제조업생산능력증가율(%)

< 설비투자 추이 및 전망 >

구 분	2009년	2010	2011년(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설비투자	-9.8	25.0	9.0	8.0	8.5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1년 상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4) 건설투자 : 하반기 소폭 반등

○ (현황) 건설투자는 2010년 2/4분기부터 이후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음

- 국민계정 상 건설투자 증가율은 건설투자는 2010년 2/4분기 -2.3%, 3/4분기 -3.1%, 4/4분기 -2.9%, 2011년 1/4분기 -11.9% 등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
- 공종별로 토목보다 건축공사 실적이 저조하고, 발주자별로 공공부문보다 민간 부분의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

○ (전망) 2011년 내 건설투자 부진 전망되나 하반기에는 선행지표 상승 반전, 예정된 토목공사 조기집행 등으로 상승 반전 가능성

- 민간 부동산경기 침체: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하여 민간부문의 주택 건축투자의 부진은 지속될 전망
 - 주택 지수는 2010년 8.29 대책이후 소폭 상승세를 보이다가 DTI 규제 완화 기간이 끝나는 2011년 3월 이후 다시 둔화
- 선행지표 상승 반전: 건설수주 증가율이 1, 2월 각기 전년동기대비 -33.9%, -16.7%의 큰 폭 마이너스를 보이다 3월 13.7%로 플러스 반전
- 하반기 예정된 공공부문 토목공사 조기 집행 가능성 : 수도권광역급행열차 (GTX) 등 예정되어 있는 공공부문 토목공사 조기 시행 등의 가능성

< 건설투자 전망 >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투자	3.4	-1.4	-6.4	4.8	-0.8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1년 상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5) 대외 거래 : 경상수지 흑자 축소

○ (현황) 2011년 상반기에도 수출 호조세를 보이며 경상수지 흑자 지속

- 미국, 일본 아세안 등을 중심으로 높은 수출 증가세를 기록. 월수출액 사상최대치 경신을 지속하며 수출 호조세를 보임
- 경상수지는 4월까지 44.9억 달러 흑자 기록하였고 무역수지는 5월 현재 157.5억 달러로 흑자 지속

○ (전망) 2011년에는 건조한 세계 경제 회복 지속으로 수출 증가세가 지속 할 것으로 예상되나 내수경기 회복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원화 절상으로 수입도 증가세를 유지하여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축소될 전망

- 건조한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지속적인 수요증가로 수출 증가 예상. 한편, 기저효과로 '상고하저' 현상이 나타나 하반기 수출 증가율은 축소되어 2011년 수출 증가율은 16% 내외 전망
 - 2011년 4월 IMF 경제 전망에 따르면, 2011년 교역량은 종전의 7.1%에서 7.4%로 0.3%p 상향 조정하였고, 특히 선진국과 신흥시장 및 개도국의 수입량도 각각 0.3%p와 0.9%p 상향 조정하여 전망함
 - 수출 단가 상승과 일본 수출 품목 대체 수요, 일본 재해 복구 수요 증가로 수출 증가율은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더 클 것으로 전망
 - 한편, 유럽 재정 위기 재발과 미국 경기 회복 지연,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잠재적인 세계 불안요인 요소 상존
- 한편, 국내 경제 회복과 국제 원자재 상승으로 수입 증가세 유지 전망
 - 국제 유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 상승, 수입 의존적 수출 구조 등으로 수입 증가율이 수출증가율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할 전망
 - 미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ERA)의 2011년 4월 26일 전망치에 따르면, 두바이 유가는 2011년 연평균 109.6달러로 전망함
 - 내수경기회복과 원화 절상은 수입증가의 주요원인으로 작용
- 따라서, 빠른 수입 증가로 2011년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각각 310억 달러, 170억 달러로 흑자는 지속되나 흑자폭은 2010년 대비 축소될 전망

<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전망 >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상수지	327.9	91.2	190.9	282.1	75	73	148
무역수지	404.5	173.0	236.0	412.0	172.2	137.8	310
수출	3,635.3	2,214.0	2,450.0	4,664.0	2,678.9	2,754.6	5,434.0
(통관)	(-13.9)	(34.3)	(23.3)	(28.3)	(21.0)	(12.4)	(16.5)
수입	3,230.8	2,038.0	2,214.0	4,252.0	2,506.7	2,616.9	5,124.0
(통관)	(-25.8)	(40.2)	(24.6)	(31.6)	(23.0)	(18.2)	(20.5)

자료 : 한국은행, 무역협회.

주 : 2011년 상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6) 물가 : 하반기 상승세 약화

○ (현황) 국내 소비자물가는 상반기에 원유 등 국제원자재 상승으로 인해 상반기에 4.3% 수준을 기록할 전망

- 소비자물가는 2010년 1/4분기 2.7%, 2/4분기 2.6%, 3/4분기 2.9%로 안정세에서 4/4분기 3.6%, 2011년 1/4분기 4.5%로 급등
- 근원물가 상승률도 2009년 4/4분기 2.4%에서 2010년 1/4분기 1.9%, 2/4분기 1.6%, 3/4분기 1.8%, 4/4분기 1.9%로 낮은 수준에서 2011년 1/4분기 2.9%로 상승

< 주요 물가 지표 상승률 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9 년	2010년					2010년				
		1/4	2/4	3/4	4/4	연간	1/4	1월	2월	3월	4월
소비자물가	2.8	2.7	2.6	2.9	3.6	2.9	4.5	4.1	4.5	4.7	4.2
근원	3.6	1.9	1.6	1.8	1.9	1.8	2.9	2.6	3.1	3.3	3.2
생활	2.1	3.4	2.9	3.1	4.1	3.3	4.9	4.7	5.2	4.9	4.1

자료 : 한국은행.

○ (전망) 하반기 소비자물가는 원자재가 상승 등 물가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 내수 약화, 원화 절상 추세 등으로 상반기 대비 상승폭이 축소될 것임

- 기준금리 인상 : 기준금리 점진적 인상으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은 완화 될 것임
- 내수 약화 : 소비의 완만한 회복, 건설투자 부진 등 내수 약화 지속
- 원화가치 상승 : 국제 원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인상 요인이 있으나 원화 절상으로 상승 압력이 약화될 전망
- 이에 따라, 2011년 하반기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반기에 3.8% 상반기보다 낮은 수준. 연간으로는 2010년보다 높은 4%대를 기록할 전망

< 소비자물가 추이 및 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소비자물가	2.8	2.9	4.3	3.8	4.0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1년 상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7) 고용 : 부진 지속

○ (현황) 지속적인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전반적인 취업자수는 증가했지만,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2010년 민간부문의 고용이 크게 개선되면서 취업자수가 전년대비 32.3만명 증가했으며, 2011년 1/4분기에도 42.3만명으로 고용 회복세 지속
- 공공부문은 정부사업 축소로 2010년 7.2만명 감소한 반면, 민간부문은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2010년 39.5만명 증가한데 이어 1/4분기에 42.3만명 증가
- 실업률은 2010년 3.7%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 1/4분기에는 구직 활동의 증가로 실업률은 4.2%로 증가
- 반면 청년실업률은 2010년 8.0%에서 2011년 1/4분기 8.8%로 증가했고. 최근에도 7~8%대를 유지

< 주요 고용 지표 추이 >

(단위 : 만명,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					
			1월	2월	3월	1/4	4월	5월
취업자증가수	-7.2	32.3	33.1	46.9	46.9	42.3	37.9	35.5
공공부문	19.2	-7.2	2.8	1.9	-4.7	0	-5.6	-3.7
민간부문	-26.4	39.5	30.3	45.0	51.5	42.3	43.5	39.2
실업률	3.6	3.7	3.8	4.5	4.3	4.2	3.7	3.2
청년총	8.1	8.0	8.5	8.5	9.5	8.8	8.7	7.3

자료 : 통계청.

○ (전망) 2011년 하반기 경제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실업률은 2010년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

- 2011년 상반기 실업률은 3.8%, 하반기는 3.3%로 전망되며, 연간 실업률은 3.6%로 2010년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
- 정부의 희망근로사업, 청년인턴제 등 비상고용책이 소진되면서 2011년 취업자수는 지난해 32.3만명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일자리 감소에 따른 구직활동의 감소, 국제 유가의 안정, 수출 호조세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실업률은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낼 전망

< 실업률 추이 및 전망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업률	3.6	3.7	3.8	3.3	3.6

자료 : 통계청.

주 : 2011년 상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8) 원화 환율 : 원화 가치 상승세 지속 전망

○ (현황) 원/달러는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와 국내적으로는 달러 공급 우위로 원화 강치 강세가 지속

- 원/달러 : 안전자산 선호 현상 악화로 글로벌 달러 약세, 수출 호조로 경상수지 흑자 지속, 기준 금리 인상 기대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여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 지속으로 원/달러가 하락하며 원화가치 상승
 - 환율은 2010년 5월 천안함 사태와 유럽발 재정 위기 재연 이후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년 7개월 만에 1,000원 대로 하락
- 원/엔 : 동일본 대지진 이후 엔화는 약세를 보였으나 최근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엔화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엔화 강세 현상이 발생하여 원/엔 환율도 상승

< 원/달러 및 원/100엔 환율 현황 >

	2009년	2010년					2011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간	1/4분기	4월	5월
원/달러	1,276.4	1,143.4	1,165.2	1,183.6	1,132.3	1,156.0	1,119.8	1,084.8	1,084.1
원/100엔	1,363.1	1,261.4	1,263.6	1,380.5	1,371.6	1,320.6	1,362.1	1,304.8	1,333.6

자료 : 한국은행. 주 : 평균 환율임.

○ (전망) 2011년 하반기에도 원화가치 강세가 지속 될 전망이며 절상 속도는 둔화 될 것임

-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 경상수지 흑자 지속, 국내 경제 성장세에 따른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 금리인상 등으로 원화가치 상승세는 2011년 하반기에도 지속 될 전망
 - 한편 그리스 재정상황 악화에 따른 유럽 재정위기 지속과 연말로 갈수록 미국 기준금리 기대감 고조로 원화가치 상승폭 제한요소 상존
 - BIS, OECD의 한국 실질실효환율지수는 2011년 5월 각각 82.9, 83.8을 기록하여 원/달러 환율은 1.6~1.9% 내외 추가 하락 가능성 존재

<환율 전망 추이>

(단위:원)

	2009	2010	2011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현대경제연구원	1,276.4	1,156.0	1,092.0	1,050.0	1,070.0

자료 : Bloomberg. 5월 14일 현재.

주 : 1) 2011년 상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22개 투자 은행 전망 평균치는 2011년 2/4분기 1,027.7원, 2/4분기 1060.1원, 4/4분기 1,048.7원 임.

(9) 금리 : 시중금리 상승

○ 2011년 상반기 시중금리는 국내경기회복 기조 지속, 물가 상승 리스크 확대 및 해외 금리 상승 압력 가중되며 상승 기조였으나 최근 대내외 불안 요인으로 하락세로 반전

-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08년 12월 3.0%에서 2009년 2월 2.0%까지 내린 후 2010년 7월, 11월 2011년 1월, 3월, 6월 다섯 차례에 걸쳐 0.25%p씩 기준금리 인상으로 현재 3.25%를 유지
- 2011년 시중금리는 상승세로 시작하였으나 유로지역 재정문제 재부각, 미국 및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최근 하락세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011년 초 3.50%로 시작하여 2011년 2월에 4.10%까지 상승하였으나 최근 하락세로 반전 6월 9일 현재 3.57%를 기록
 - 회사채 3년물 AA-금리도 2011년 상승세로 시작하였으나 2011년 2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6월 9일 현재 4.32%를 기록

○ 2011년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인한 점진적 기준 금리 인상은 시장 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나 대내외 불안요인으로 상승폭은 소폭에 그칠 전망

- 하반기 기준금리는 3% 중후반으로 전망
 - 하반기에도 전기, 가스, 지하철 등 공공요금 상승으로 소비자물가 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기준금리는 두 차례 인상될 전망
- 시중금리는 물가불안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가계 부채 증가, 해외 경기의 불확실성 상존 등이 시중금리의 인상폭을 제한하여 국고채 3년물 금리수준은 연간 4.1%를 기록할 전망
 - 물가수준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기준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
 - 경제성장률은 2010년 3/4분기 전년동기대비 4.4%, 4/4분기 4.7%, 2011년 4.2%로 성장률 둔화 추세 지속되며 2011년도 4%대 초반 성장 전망
 - 저축은행 부실문제, 가계부채 문제 및 글로벌 경기둔화, 유럽재정문제 등 대내외 불안요인 상존

< 국고채 3년물 금리 추이 >

(평균,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E)		연간
			상반기	하반기	
국고채 3년	4.0	3.7	3.8	4.4	4.1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1년 상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3. 시사점과 정책 과제

- (시사점) 2011년 하반기도 내수 회복이 미약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부 정책은 확대균형적 내수 경기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 (단기과제) 서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가계부채 연착륙, 투자 활성화 등이 최우선 과제
 - 하반기에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 공공 및 서비스 요금 차등 인상 등으로 인한 물가 안정 기조 확립
 -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
 - 이를 위해 완만한 금리 인상 기조를 위해 완만한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되, 저소득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등하지 않도록 세밀한 조율이 필요
 -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장기,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도록 제도를 설계
 - 건설 및 설비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 미분양 아파트의 다양한 용도 개발과 적정가 분양, 주택 매매 활성화 촉진 등을 통해 민간 건설 경기를 살려나가야 함
 - 한편, 법인세 감면 등 일관성 있는 조세 정책 추진으로 투자 활성화를 유도
- (중기과제) 국내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서비스업을 비롯한 내수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속 추진
 - 서비스업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
 - 특히, 의료·관광·교육 부문에 대한 개방과 혁신으로 이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함
 - 내수 기반 확충을 위해 일자리 창출의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함
 - '환경영향평가제'와 마찬가지로 '고용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이를 전산업으로 확대해 나가야 함
 -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 대중소기업의 동반 세계화, 법·제도 기반 사회 안정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
 - 특히, 좁은 국내시장 중심의 '나누기식' 동반성장 보다는 넓은 세계시장에 중 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 진출하는 '확장형' 동반성장 정책 발굴에 힘써야 함

< 2011년 하반기 주요 경제 지표 전망 >

구 분		2009	2010			2011(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0.3	8.0	4.5	6.2	3.9	4.7	4.3
	민간소비(%)	0.0	5.1	3.3	4.1	3.4	4.0	3.7
	건설투자(%)	3.4	0.4	-3.0	-1.4	-6.4	4.8	-0.8
	설비투자 (%)	-9.8	29.8	21.0	25.0	9.0	8.0	8.5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328	91.2	190.9	282.1	75.0	73.0	148
	무역수지 (억 달러)	405.0	175.4	236.4	412.0	172.2	137.8	310
	수 출 (억 달러)	3,635.0	2,214.0	2,450.0	4,664.0	2,679.0	2,755.0	5,434
	(증가율, %)	-13.9	34.3	23.3	28.3	21.0	12.4	16.5
	수 입 (억 달러)	3,231.0	2,038.0	2,214.0	4,252.0	2,507	2,617.0	5,124
	(증가율, %)	-25.8	40.2	24.6	31.6	23.0	18.2	20.5
소비자물가(평균, %)		2.8	2.6	3.3	2.9	4.3	3.8	4.0
실업률(평균, %)		3.6	4.1	3.4	3.7	3.8	3.3	3.6
원/달러 환율(평균, 원)		1,276.4	1,143.4	1,165.2	1,156.0	1,092	1,050	1,070
국고채 수익률(3년)		4.0	3.9	3.5	3.7	3.8	4.4	4.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9년					2010					2011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미국	-2.6	-4.9	-0.7	1.6	5.0	2.9	3.7	1.7	2.6	3.2	2.8
유로 지역	-4.1	-2.5	-0.1	0.4	0.2	1.8	0.4	1.0	0.4	0.3	1.6
일본	-6.3	-20.1	10.8	-1.9	7.3	3.9	6.0	2.1	3.3	-1.1	1.4
중국	8.7	6.2	7.9	9.1	10.7	10.3	11.9	11.1	10.6	9.8	9.6
한국	0.2	-4.3	-2.2	1.0	6.0	6.2	8.5	7.5	4.4	4.7	4.3

주: 1) 2011년 전망치(E)는 IMF 2011년 1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6월10일	6월16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83	3.89	3.30	2.97	2.93	-0.04%p
	엔/달러	92.93	88.43	81.19	80.32	80.86	0.54¥
	달러/유로	1.4413	1.2238	1.3350	1.4513	1.4181	-0.0332\$
	다우존스지수(p)	10,428	9,774	11,578	11,952	11,962	10p
	닛케이지수(p)	10,655	9,383	10,229	9,514	9,411	-103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4.41	3.86	3.38	3.65	3.61	-0.04%p
	원/달러(원)	1,164.5	1,222.2	1,134.8	1,082.6	1,089.9	7.3원
	코스피지수(p)	1,682.8	1,698.6	2,051.0	2,046.7	2,046.6	-0.1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6월10일	6월16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79.35	75.77	91.40	99.30	94.84	-4.46\$
	Dubai	78.06	73.14	88.80	112.04	108.25	-3.79\$
CRB선물지수	283.38	258.52	332.80	348.04	336.89	-11.15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